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0621-14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203호 ▌2016년 9월 22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

유 웅 조*

1. 들어가며

지난 9월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매우 우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내·외 일각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론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5월 1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13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해 권고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물론 당시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실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및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이 더욱 강화된다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재배치 문제는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전 세계적인 전술핵무기 보유 현황과 미국의 관련 정책변화를 살펴보고, 이의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전술핵무기 범주와 보유 현황

핵무기[1]는 위력, 사정거리, 사용목적 등에 의거하여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 같은 기준에 의거할 경우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전술핵무기는 미국과 러시아 간 의 핵무기감축 협상과정에서 전략핵무기에 포함되지 않는 핵무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술핵무기는 전략핵무기에 포함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2] 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3]에 장착된 핵탄두, 그리고 중

1) 이는 영어로 'nuclear arms' 또는 'nuclear weapons' 등으로 표현되는데, 두 개념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nuclear arms'는 '핵탄두'(nuclear warheads)와 '핵탄두 운반장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nuclear weapons'는 '핵탄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non-strategic nuclear weapons'(또는 tactical nuclear weapons)는 'non-strategic nuclear arms'에 장착되어 사용하는 'warheads'를 의미한다.

2)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약자

*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정치학 박사, wyoukr@nars.go.kr, 02-788-4551

거리 폭격기에 운용되는 투하탄을 제외한 모든 핵무기를 의미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현재 실전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파키스탄 등으로 약 2,800기를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체된 상태로 보관 중인 전술핵무기를 추가할 경우 그 숫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 미국의 경우에는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에 150기에서 200기를 배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와 철수

(1) 배치 배경과 과정

냉전시기 미국은 미국 내 주요 지역과 미군의 주요 해외주둔지, 그리고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시되는 세계 각 지역의 군함 또는 공군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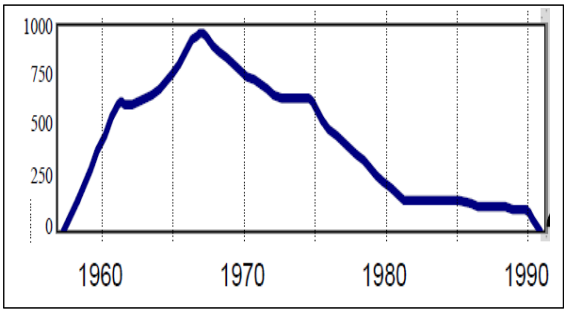
이 같은 전술핵무기 해외 배치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핵공격을 비롯한 군사적 공격 또는 이에 준하는 위협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는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 지역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한반도 핵무기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한반도에 언제 핵무기가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정보는 없다. 단지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정보만 있을 뿐이다.[5]

이 같은 정보에 따르면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1958년에 시작되었다. 우선 1958년 1월에 5가지의 핵무기를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Hohest John 지대지 미사일, Matador 순항 미사일, 핵지뢰, 8인치 곡사포 등이다. 또한 동년 3월에 핵폭탄을 들여왔다.

그리고 1960년 7월에서 1963년 9월 까지 Lacrosee, Davy Crockett, 그리고 Segergen 등의 지대지 미사일체계를 들여온 바 있다. 또한 1961년 1월에 대공 및 지대지 미사일 기능을 갖춘 Nike Hercules를 들여오는 한편, 1964년 10월에 280mm 포 및 155mm곡사포를 들여온 바 있다. 이때 한국에 배치된 핵탄두는 950여기에 달함으로써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 .

<그림 >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 규모 추이 (1958-1991)



자료: http://www.nukestrat.com

3)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약자

4) 그러나 전술핵무기 실제 보유량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에 불과하다. 미국 과학자 연맹 사이트 참조 (www.fas.org)

5) 따라서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전술핵무기 배치관련 사항은 Peter John Heyes의 "Pacific Powde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고대승·고경은 번역, 『핵딜레마』, 1991, 한울)의 자료와 미국과학자 연맹소속인 Hans M. Kristensen의 "A History of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2005 자료를 참조하였다. (www.nukestrat.com/korea/koreahistory.htm)

한편 1974년에 F-4D 전투기가 군산 공군 기지에 배치된 바 있는데, 이는 일본의 Kadena 공군기지와 필리핀의 Clark 공군기지를 연결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1970년대 중반 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6년에 540여기에 달하던 핵무기는 1985년에 150여기로 감소하였다. 또한 1991년에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는 100여기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1> 한반도(군산)에 배치되었던 미국 전술핵무기

종류		규모		
		1977년 이전	1983년	1985년
공중중력폭탄		192	135	60
포	8인치	56	63	40
	155mm	152	31	30
	연장방사	?	?	?
지대지 미사일		92	?	?
지대공 미사일		144	0	0
핵지뢰		25-50	20	21
계		660-686	249	151

자료: 피터헤이스 저, 고대승·고경은 역, 『핵딜레마』 (1991), p. 166.

(2) 철수 배경과 과정

그러다가 탈냉전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1990년 냉전 해체 후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핵군축을 위한 일명 '대통령핵구상'(PNIs)[6]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구상에 따라 1991년 9월 27일 부시 미 대통령은 해외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파기 및 감축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동년 10월 5일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였으며, 1992년 1월 29일 옐친 러시아 차기 대통령도 이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같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선언과 함께 한국은 1991년 11월 18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12월 18일 '한반도 핵부재 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서의 핵무기 철수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1998년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한반도에 배치되었던 핵무기 철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 바 있다.

4.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관련 쟁점

(1) '한반도 비핵화' 선언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지난 1991년 11월 18일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동 선언에 따르면 핵연료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동 선언에서 한국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이의 제거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2) 미국의 비핵화 정책과 전술핵무기 해외배치 축소정책

미국은 1991년 이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지난 부시 행정부나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핵없는 세계' 구상을 토

6)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의 약자

대로 전 세계의 비핵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미 차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미국은 전술핵무기 배치를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등 유럽에 150에서 200여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 미국 전술핵무기 유럽 배치 현황(2015)

구분	공군 기지	규모
터키	Icirlik	60-70
벨기에	Kleine Brogel	10-20
네덜란드	Volkel	10-20
독일	Büchel	10-20
이탈리아	Aviano, Ghedi Torre	60-70

자료: 미국 군축과 비확산센터 (http://armscontrolcenter.org)

이 같은 전술핵무기가 탈냉전 체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테러집단에 의한 오용가능성 등으로 인해 이를 철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핵군축 협상에서 전략핵무기뿐만 아니라 전술핵무기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미국은 전술핵무기 규모 및 해외 배치를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3) 외교 전략적 측면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로 인해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외교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또 다른 갈등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 또는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등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협상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는 국제규범이나 외교적 상황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주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5. 나가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미국의 비핵화정책 및 전술핵무기 해외 배치축소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갈등 촉발 가능성, 그리고 협상카드로서의 활용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 전술핵무기 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은 높지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는 주요한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거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국제규범이 현실적인 안보위협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현실주의적 논리가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맥락에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